

담 임 목 사: **임철성** Rev. Chul Sung Lim

부목사(KM): 정진부 (214) 734-0815, 전희준 (224) 551-0775

부목사(EM): Yun Choi (847) 971-7242, John Kim (248) 894-2106

협 동 목 사: 서요셉 김태한 김영래 김주현

교육전도사: 이영걸 유진경 Jonathan Kim

시 무 장 로: 김종규 손기원 임명기 한성호 이병준 김승식 유진하 이병기

휴 무 장 로: 정병철 김형곤 이훈 우현중

은 퇴 장 로: 김사무엘 정규상 함성택 허만춘 김광근 이기수 함용철 강진산 김인철

김광식 용성순 함덕준 박양성 김언한 김순철

제1816호 2020년 1월 19일

좀 아팠습니다

신년 특별새벽기도 다섯째 날을 마치고 한기가 온 몸에 돌더군요. 평상시에 작은 피곤을 느끼기는 해도 자주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겁을 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파도 주초에 아프게 해 주세요. 주말에는 멀쩡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인지 한 주를 넘겼는데도 오히려 다양한 코스의 감기몸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석달 째 코감기를 앓는 김 목사님에게 “거기서 옳은 것 같아.” 괜히 시비를 걸어봅니다. 목회편지를 쓰면서도 주일 설교와 예배 인도가 염려됩니다. “누구한테 옳았지?” 보다 제가 옳기지는 말아야겠네요.

장로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운동하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100가지를 대면서 “곧 해야지요, 할 거예요, 저 운동 좋아해요.” 라고 변명을 하고 넘겼는데, 올 게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생전 처음 만들어 보았다” 며 그 추운 저녁에 정성으로 달인 배즙을 갖다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기침하는 저를 마음에 두셨나 봅니다. 부임 후 얼마되지 않았는데, 사택 앞에 이름없는 감사 카드와 운동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 주셔서 감사해요.” 누군지 몰랐는데 같은 분 같습니다. 걸린 운동복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 꺼내 입어야겠습니다.

연말연시, 아픈 성도들과 수술 일정, 그리고 가족들의 소천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프다고 광고하는 게 아닌 것, 아시지요? 그저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제직회 공천과 공동의회 공천 과정도 힘들고, 선거에 대한 긴장 때문에 엄살을 부리게 됩니다. 힘든 줄 알지만, 좋은 마음으로 수락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후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드리겠습니다.

2020. 1. 19. 임철성 목사 올림

갈릴리 : 1982년 이후 / 38세 이하 기혼

기브온 : 1981-70년생 / 39-50세 남자

1마리아 : 1981-76년생 / 39-44세 여자

2마리아 : 1975-72년생 / 45-48세 여자

3마리아 : 1971-68년생 / 49-52세 여자

1베드로 : 1969-66년생 / 51-54세 남자

2베드로 : 1965-62년생 / 55-58세 남자

3베드로 : 1961-58년생 / 59-62세 남자

1에스터 : 1967-65년생 / 53-55세 여자

2에스터 : 1964-62년생 / 56-58세 여자

3에스터 : 1961-59년생 / 59-61세 여자

4에스터 : 1958-56년생 / 62-64세 여자

1엠마오 : 1957-54년생 / 63-66세 남자

2엠마오 : 1953-50년생 / 67-70세 남자

3엠마오 : 1949-46년생 / 71-74세 남자

1루디아 : 1955-53년생 / 65-67세 여자

2루디아 : 1952-50년생 / 68-70세 여자

3루디아 : 1949-46년생 / 71-74세 여자

1안디옥 : 1945-40년생 / 75-79세 남녀

2안디옥 : 1939년 이전 / 80세 이상 남녀

